

강진·장성 청렴교육 '올인'

강진, 다산 정약용 내세워 '다산교육관·수련원' 운영

장성, 아곡 박수량 모티브 '청렴문화 체험교육' 진행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과 청백리(淸白吏)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

다산은 28세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가 탄탄대로를 걷다가 후견인인 정조 사후 시련을 겪으며 강진에서 18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초당(草堂)에 거처하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신서' 등 500여권의 저서를 남기며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거듭났다.

조선 중종~명종때 문신인 아곡은 형조판서·한성부판윤·중추부지사 등 벼슬을 지냈지만 장래도 치르지 못할 만큼 청렴하게 생활했던 청백리였다. 그래서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이때 그의 청백한 행적을 글로 찬양한다는 것이 누가 될 수 없다 해 글을 쓰지 않고 상징적으로 백비(白碑)를 세우도록 했다.

강진군과 장성군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아곡 박수량 선생을 공무원

들의 표상(表象)으로 삼아 청렴과 애민(愛民)사상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강진군, 다산 공직관 교육=강진군은 지난 2011년 안전행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다산교육관과 수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산 공직관 학습·체험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1~2013년 3년간 4500여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도 3월에 신규 공직자 110명 이 교육을 마쳤고, 오는 11월 21일까지 5기수 500명과 신규반 18기수 1800여명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정부 정책에 맞춰 '정부 3.0' 특강을 신설해 공직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나의 공직관 확립을 위한 다산 공직관 찾기 ▲다산선생의 삶과 사상 ▲현대적 의미의 목민심서 ▲다산의 창의적 사고법으로 세상

바꾸기 ▲유배길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청렴과 애민(愛民)사상을 바탕으로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과 학교 등 2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비는 20인 기준 당일코스 4만원, 1박2일 코스 13만원이다.

◇장성군, 청렴교육 줄이어=장성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반 동안 장성출신 청백리(지지당 송흥·아곡 박수량)를 모티브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추진, 전국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장성군 청렴교육에는 1000여개 기관에서 3만2000여명의 교육생이 다녀갔다. 이로 인한 소득만 14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관내 식당 7억6000만원 ▲숙박업체 5억1000만원 ▲농가 농·특산물 판매 1억원 등 매출을 올렸다. 이 밖에도 아카데미 책자와 청렴교육 교재 판매로 3000여 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베이지웃 입은 직박구리. 직박구리 한 마리가 지난 2일 강진군 도암면 백련서 등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51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속 직박구리는 회색과 얼은 잿빛을 띤 직박구리와 달리 베이지색을 띠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진군 제공>



장성군 황룡면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를 방문한 공무원들이 백비를 보며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있다.

주말엔 강진서 명품공연 관람

내일 '마랑 미항 토요일음악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

'마랑 미항(美港) 토요일음악회'가 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2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진군 마랑미항 토요일음악회 추진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마랑 특설무대에서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가수 정지송과 댄스팀 '이카루스' 등이 참여한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동절기 제외) 열리고 있는 마랑 토요일 음악회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212회 공연에 매회 500명 이상 가족과 연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또 마랑 주위에 자리한 '마랑 까막삼삼목수림'(천연기념물 제172호)과 마랑~고금간 연륙교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강철석 추진위원장은 "가족과 연인, 관광객과 함께 하는 명품 토요일 음악회로 만들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장성경찰서 학폭 근절·미래 설계 특강

장성경찰서(서장 노규호)는 3일 장성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은 노 서장이 직접 강단에 서서 사례중심의 학교폭력 사건과 처리절차 등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 방법 등을 강의했다. 또 노 서장은 특강 후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눈높이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 서장은 학생들에게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큰 꿈과 큰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여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강의를 통해 내 미래설계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북

단신

부안군수 인사비리 피고인 진술변복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이 피고인들의 진술 변복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 씨는 지난 1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을 김 군수가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모 씨는 "군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모 당시 부군수를 통해 '김 군수의 뜻'이라고 전해 듣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며 "다만 김 군수와 박 부군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그동안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이유에 대해 "공직 체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사건이 오래 돼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증인들의 진술을 지켜보다가 최근에 와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벚꽃터널에서 문화공연 즐겨요

남원벚꽃축제 오늘부터

정음예술제 내일부터

남원 요전강변과 정음천변에서 만개한 벚꽃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벚꽃축제가 열린다.

남원시와 시 관광발전협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남원시내를 가로지르는 요전강 심수정 일원에서 벚꽃축제를 연다. 정음시와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정음지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정음천변 특설무대에서 제18회 정음예술제를 개최한다.

◇남원시 벚꽃축제=남원 요전강변 왕벚나무 1만2000여 그루가 화려한 꽃망울을 터트렸다.

주요 행사로는 시민예술 동아리의 재능기부로 마련되는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사랑(愛) 벚꽃 트리빛길, 허브 전시체험관,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요전강 별빛 레이저 쇼'는 상춘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뭇가지에 배선을 하지않는 LED 특수조명을 이용해 삼원색(빨강·노랑·파랑색) 레이저 빔을 최대 4만 개까지 동시에 쏘아 올려 나뭇잎과 가지에 다양한 모양으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사랑(愛) 벚꽃 트리빛길'은 행사장 주변의 수령 30년된 왕벚나무 50여 주를 시민·단체·기업 등에 분양해 각자의 소망을 적은 꽃말을 달아 아름다운 트리 빛길로 조성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섬진강 주변의 지역주민과 김용택 시인·송

만규 화백·안숙선 명창·송소희 국악신동 등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벚꽃이 수놓은 섬진강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제18회 정음예술제=정음천변 벚꽃길은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호남고속도로 정음 나들목부터 내장산까지 16km에 걸쳐 이어지는 정음천변에 40여년생 1800그루의 벚나무가 화사한 자태를 자랑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예총 정음지회 산하 7개 단체(음악·미술·사진·문인·무용·국악·연극)와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5일 벨리덴스 공연을 시작으로 통기타 라이브 공연·우쿨렐레 연주공연·색소폰 연주·국악 난타공연·정음시립 농악단 특별공연·오카리나 공

연·시 낭송 등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12일에는 정음예총이 주최하는 정음겨주 전북 무형문화재 합동 발표회(김명신·유지화 선생)를 비롯해 제6회 정음 무용제(무용협회), 신과극 '홍도야 우지마라'(연극협회), 내장산 벚꽃 가요제(정음예총), 일수! 우리 국악 한마당(국악협회),발레공연(무용협회), 선을 따라 흐르는 퓨전음악회(음악협회) 등 예총과 산하 7단체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린다.

정음예총 관계자는 "벚꽃길을 찾은 시민과 상춘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감동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남원=백선기자 bs8787@



남원시민들이 요전강 심수정 일원에 핀 왕벚나무길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미감쾌청 문화센터' 개소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 미감쾌청 문화센터(건축면적 374㎡)가 3일 문을 열었다.

군은 강선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센터는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화장실 등을 갖춰 각종 행사와 여가활동,

교육장소로 활용된다.

이강수 군수는 "문화센터 준공으로 다가오는 서해안 새만금 시대에 발맞춰 구시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시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개최

제13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행사가 5~6일 이틀간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전통서당 문화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서당 학동과 일반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날 서당에서 읽고, 짓고, 쓰던 3가지 과목 강경(講經)과 한시,

서예를 통해 과거제도를 재연한다.

또한 서예 퍼포먼스와 서당문화의 밤 행사, 관광객과 함께하는 OX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와 전통 먹거리 체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경찰서 112타격대 사격 등 훈련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최근 소성면 주천리 군부대 훈련장에서 112 타격대원들을 대상으로 무전기 사용법과 K2 소총 사격술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군사 기본지식 습득과 함께 유사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112 타격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군 위탁교육과 분기별 1회 사격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평소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112 타격대 훈련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유사시 작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보건의료원 '마음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순창군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관내 정신 장애우들의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12월까지 '마음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회기술 훈련과 대인관계 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인지행동치료, 직업재

활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또 정신건강 교육과 운동, 공예, 원예, 음악요법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 정신과 전문의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사례 관리도 실시한다. 문의(063-650-5247) /순창=이동희기자 dhlee@